귀 국 보 고 서

소속학과		파견대학	리투아니아 샤울레이대학교
학번	20140	파견기간	2017. 1. 28. ~ 2017. 6. 21.
이름	김	프로그램	정규

※ 우수 귀국보고서 선정하여 국제교류본부 연수후기에 익명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한국에서 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리투아니아에도 외국인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장기간 설정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비자는 리투아니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잔액증명서를 준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준비해야합니다. 항공권은 출국 전 3개월쯤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데 수시로 확인해보면서 가장 가격이 싼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저는 봄학기를 다녔는데 리투아니아는 겨울이 길고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가 아주 유용합니다. 필요서류와 증명사진 여러 장 등은 필수적으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샴푸, 린스 등)은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리투아니아어가 따로 있지만, 교환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수업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어를 몰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멘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영어를 잘합니다. 물가는 아주 저렴한 편이라서 한달에 30만원 정도면 생활 가능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샤울레이 대학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다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한 멘토 당 학생들을 7~8명씩 맡아 관리해줍니다. 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싸고 근처 나라들을 여행하기 좋은 위

치에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근처 공항은 리가공항, 빌뉴스 공항이 있는데 리가공항과 샤울레이 대학교가 위치상으로 더 가깝고 직행으로 버스가 있기 때문에 리가공항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을 한국에서 미리 해가지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OT를 듣고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OT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문화를 배우는 수업과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거나 유럽 문화를 배우는 수업을 위주로 들었습니다. 한국수업과 달리 자유롭고 대부분의 수업이 토론식입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기숙사는 2명이 한 개의 방을 쓰고 4명이 화장실, 세면대를 공유합니다. 샤워실과 부엌은 층마다 2~3개씩 있으며 다같이 공유해서 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쾌적한 느낌은 없고, 방은 평일 아침마다 청소해주시고, 2주에 한번 배게, 이불 시트를 갈아주셔서 깨끗합니다.

나-5. 교내·외 활동

샤울레이 대학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샤울레이 지역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교수님들도 수업보단 경험을 더 중요시 해주셔서 수업시간과 행사시간이 겹치면 행사에 데리고 가시는 등 자유롭습니다. 또, 샤울레이에 헬스장, 볼링장, 합창단 등 많은 여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식재료가 싸기 때문에 음식은 대부분 요리해서 먹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 한식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울레이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지만 버스비는 학생증 할인이 되서 0.4유로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국제학생증 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여행이나 경험에 관대하신 편이셔서 학기중에 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정중하게 여행을 가서 수업을 못 온다고 말하면 대부분 허락해주십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스캐너를 보면서 항공권 싼 것이 있으면 주말을 통해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주말을 통해 샤울레이 근교 소도시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국가들을 많이 여행했지만 정작 리투아니아 여행을 많이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실력 향상, 여행, 문화체험 등 목표가 있어야 그에 맞게 사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인생의 큰 추억거리로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샤울레이에서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좋은 추억 얻길 바랍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